

머니투데이

목포대, 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기업-인재 매칭 앞장

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| 입력 : 2017.03.27 20:38



목포대학교는 27일 오전 11시 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(영암)에서 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2017년 대불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선취업-후진학 과정 수료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에는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우기종 이사장, 송하철 원장, 목포대 최 일 총장, 대불산단 중소기업 12개사, 특성화고 교장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.

이번 수료식과 협약식 대상 학생은 총 16명이다. 선취업 후진학 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회사 업무와 관련 직무교육 250시간을 수료하고 지난 2월말 대불산단 내 조선해양산업 유망 중소기업에 채용됐다.

이들은 재직자 신분을 이미 확보한 후진학 지원자 6명과 함께 소정의 입학과정을 거쳐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.

최 일 총장은 "목포대는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과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지역, 기업, 교수, 학생들과 함께하며 선취업-후진학 과정 선순환 정착에 앞장서는 대학이 되겠다"고 말했다.

우기종 이사장은 "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일 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"면서 "국립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와 대불산학융합지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이번 과정을 총괄한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송하철 원장(목포대 산학협력단장)은 "앞으로도 기업과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본 과정을 확대해 많은 기업체와 특성화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"고 밝혔다.